

아동성착취, 섹스팅, 온라인 그루밍: 개념 규정과 처벌법규에 대한 논의

정연주*

초 록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며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신설되었으나 아직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짚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온라인 그루밍의 발생 환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아동성착취, 섹스팅의 개념을 짚어보고 이것이 문제시 되는 상황에 대하여 논하였다. 다음으로 온라인 그루밍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동성착취는 아동에게 물질적, 정신적인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한 상태에서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섹스팅은 학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와 실험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성인이 참여한 경우라면 학대적 성격으로 분류된다. 이 때 성인은 아동을 자신의 요구대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 심리적 조작을 하게 된다. 온라인 그루밍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성착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이들을 심리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로 그 단계에 따라, 내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그루밍의 가해자 특성과 피해자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성착취, 섹스팅과 온라인 그루밍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현재 법률상의 한계점을 짚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아동성착취, 섹스팅, 온라인 그루밍, 아동, 청소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ychung@kwidimail.re.kr)

I. 서론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등 2018년 후반부터 알려진 온라인 성착취 사건은 미성년자와 20대 성인 여성이 노출된 범죄 위험과 익명 대화방의 위험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렸다. 이 사건들로 인해 디지털 성착취,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단어들이 대중매체나 뉴스에서 자주 사용되며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다.

이렇게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범죄의 위험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의 통제 없이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경찰통계연보¹⁾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죄에 대한 통계현황을 2019년과 비교해 보면 큰 폭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2019년 1,437건 발생하였으나, 2020년에 2,047건 발생하여 전년대비 약 1.4배 증가하였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의 경우 2019년 735건에서 2020년 2,621건으로 약 3.6배 증가하였다. 국제적으로도 이와 유사하여, 미국의 경우 2019년 대비 2020년에 인터넷을 통한 유인 신고 접수가 98.66% 증가하였고, 신고 제보의 경우는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여 160만건이었다(U.S. Department of State, 2021:7).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라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 2가 신설되어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성적으로 착취하려는 성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법 조항의 내용을 보면, 먼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교행위, 유사 성교 행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적 접촉, 노출 행위, 자위 행위를 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 단, 대상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성적 착

1) 경찰청(2021). 2020년 경찰통계연보. 제64호.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5.jsp>에서 2022.3.7. 인출.

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즉,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인 대화를 시도한 경우, 또는 성적인 행위나 대화를 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데, 대상자가 법적으로 만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함을 증명해야 하며, 만 16세 미만의 대상자일 경우에는 목적이 드러나지 않아도 처벌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동법 제25조의 2가 신설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제11조)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제15조의 2),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2항, 3항)를 수사하기 위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정보통신망을 포함한 범죄현장, 혹은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것을 허용했다. 제15조의 2의 내용과 제25조의 2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위장한 사법경찰관리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에 참여시키거나 유인 또는 권유하는 경우 실제적으로 그 행동의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실재하지 않다 하더라도 행위가 발생한 증거로 인정되어 기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제15조의 2에서 말하는 성적 착취의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정의가 명시²⁾되어 있지 않으며, ‘지속적, 반복적’의 기준이 분명치 않아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현재의 법적 장치로는 아동과 청소년을 온라인 성착취 범죄로부터 온전히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정연, 2021:145). 이러한 한계는 사법경찰관리의 위장수사 범위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내용을 불명확하게 할 수 있으므로 향후 법 개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적 착취의 정의 뿐 아니라 온라인 그루밍의 행위 양상이나 섹스팅의 범죄적 특성에 대해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한데, 온라인 그루밍이나 섹스팅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비하여 이에 대한 학술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섹스팅과 온라인 그루밍의 행위 내용이나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구성요건을 달리 한 근거에 대한 논의는 더더욱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그루밍

2) 2005년 12월 29일 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7801호) 제1조에는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 성적 착취·학대 행위’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7년 8월 3일 법이 전부 개정되며 성적 착취라는 용어의 정의내용이 삭제되었다.

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와 이를 목적으로 한 대화로서 섹스팅의 개념을 정립하고 온라인 그루밍 행위내용과 가해자, 피해자 특성에 대해 살펴본 후 현행 처벌법의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온라인 그루밍의 배경: 아동성착취와 섹스팅

1. 성착취의 개념

아동성착취, 또는 성적 착취의 개념은 국내에서는 현행법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김정연, 2021:141). 따라서 국제적으로 어떻게 개념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3년 서아프리카에 파견된 국제구호원이 난민을 성적으로 유린한 것이 문제시 되면서 이를 금하고 UN 소속원이 지켜야 할 준수원칙을 UN사무총장 고시(SGB:Secretary-General's Bulletin, 2003:1)에서 밝혔는데 여기에 성학대와 성착취의 개념이 소개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성착취는 '성적 목적으로 타인의 취약성, 권력 차이, 또는 신뢰를 실제로 남용하거나 남용하려고 시도한 행위로 이러한 행위를 통해 금전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을 의미한다(SGB, 2003:ST/SGB/2003/13:Section 1). 또한 같은 문서에서 아동성착취에 대하여 언급하며, 해당 국가의 법적 성년의 나이와 무관하게 만 18세 이하의 사람과의 성적 행위에 대해 금지하였다(SGB, 2003:Section 3.2.(b)). 즉, 여기에서 정의된 아동성착취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 만 18세 이하의 사람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란사로테(Lanzarote) 협약'이라고 불리는 '성착취와 성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유럽 회의 협약(Con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2007)'에서는 아동성학대,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정의는 명시하였지만 아동성착취에 대한 정의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제18조에서 24조에 걸쳐 아동성학대(제18조), 아동 성매매(제19조), 아동포르노그래피 촬영·유포·소지(제 20조), 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유도하도록 하는 행위(제 21조), 아동에게 다른 이의 성적 학대 또는 성적 행위를 보도록 하는 행위(제 22조), 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제23조), 그리고 앞서 열거한 행위를 돕거나 시도하는 행위(제24조) 등을 처벌하도

록 하였으나(Council of Europe, 2007.10.25.:7-8), 여기에서도 ‘아동 성착취(Child Sexual Exploitation)’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3조 b의 내용을 보면 “아동 성학대와 성착취는 제18에서 23조에 언급된 행위들을 포함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어 유럽의회에서 아동성착취를 아동성학대와 분리하지 않으며, 제 18조에서 23조에 열거한 모든 행위의 집합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국제 아동 성매매 근절단체인 ECPAT International의 관계기관합동실무단(Intragency Working Group)은 2016년 성착취 및 성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위한 용어에 대한 지침서(Terminology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를 발간하였는데, ‘룩셈부르크 지침’이라고 불리는 이 지침에서는 ‘대가’의 유무로 아동성착취와 아동성학대를 구분하였다. 어떠한 이득이나 혜택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그 대가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요구받은 아동은 성착취의 피해자로 설명하였는데, 여기에서 이득이나 혜택은 단순히 금전적인 것이 아니며, 숙박, 음식, 마약, 술, 담배, 관심, 선물 등이 포함되고 이것은 제3자, 가해자, 혹은 아동 자신이 제공하는 것일 수 있다(ECPAT, 2016: 24-25).

또한, 아동성학대의 많은 경우 아동을 침묵시키기 위해 작은 선물을 준다거나 애정을 주는 등의 대가나 아동에게 이득이라 할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며, 아동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학대하려는 행위의 모든 피해자는 아동성착취 피해자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룩셈부르크 지침에서는 아동성학대와 아동성착취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다고 보았다(ECPAT, 2016:25). 아동의 연령에 대해서도 룩셈부르크 지침에 정의되어 있는데, UN이나 유럽의회, 란사로테 협약에 정의된 아동의 연령과 동일하게 만 18세 이하를 아동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권고한다(ECPAT, 2016:6).

즉, SGB에서는 아동성착취를 가해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규정한데 반하여, 란사로테 협약이나 룩셈부르크 지침에서는 아동성학대와 아동성착취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며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란사로테 협약에 여기에는 아동성착취물, 아동과의 성행위 등과 함께 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 아동을 성적인 목적으로 유인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2. 섹스팅의 개념

성적인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아동을 유인하는 경우, SNS내의 DM(direct message), 카톡과 같은 인스턴트 메신저, 인터넷 대화방 등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소통창구가 활용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흔히 섹스팅(sex와 chatting의 합성어)이라 하는데, 섹스팅은 정의에 따라 아동을 성적 목적으로 유인하는 등 문제적 성격의 행위 뿐 아니라, 상호 동의하에 서로의 성적 유희를 위한 행위까지도 포괄될 수 있다.

룩셈부르크 지침에서는 섹스팅을 ‘성적인 이미지를 스스로 생산하는 것’, 또는 ‘성적인 메시지나 이미지의 교환’과 ‘성적인 의미를 암시하는 나체 이미지, 또는 나체에 가까운 이미지를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생산, 공유, 전달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상호 동의하에 또래 사이에서 이루어진 섹스팅도 있지만 그 루밍이나 집단 괴롭힘 등으로 인해 원치 않지만 참여하는 경우도 포괄한다고 밝혔다(ECPAT, 2006:44). 섹스팅에 포함되는 행위는 ①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교환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②성적인 암시가 있는 나체(또는 반나체) 이미지를 촬영하여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 ③성적인 암시가 있는 상대방의 나체(또는 반나체) 이미지를 전송받는 행위, ④전송받은 제3자의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섹스팅은 서로 동의하에 권력의 위계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또래끼리 주고 받은 것이라면(제3자가 동의하지 않은 ④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 자체로 문제행동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강압에 의한 것이거나, 촬영에는 동의하였지만 타인에게 유포하는 것에는 동의한 적이 없는 경우, 또는 원치않은 섹스팅의 경우 폭력행위로 볼 수 있다.

해외의 연구 사례를 보면, ECPAT의 정의와 유사하게 ‘전자매체를 통해 교환하는 성적인 영상과 이미지’로 섹스팅을 정의한다(Wolak & Finkelhor, 2011:2; Temple et al., 2012:828; Morelli et al., 2016:137; Mori et al., 2019:771). 이 내용을 보면 국제적으로는 매개체를 인터넷, 핸드폰 등의 전자매체로 보고 있으며, 교환하는 내용은 성적인 이미지나 메시지의 형태로 이해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섹스팅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제시된 연구는 이창훈(2016)의 연구와 허경미(2017)의 연구이다. 먼저 이창훈(2016:299)은 섹스팅에 대한 정의로 다섯 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는데 첫째, 단순히 음란물이 아닌 휴대폰으로 유통 가능한 모든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메시지, 영상, 음

성 녹음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대화 중 유통되는 성적 내용의 영상에는 청소년이 스스로 생산한 ‘비상업적 음란물’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입수한 모든 ‘성인 음란물’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상업적인 목적이 없는 쾌락을 위한 목적의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강제성은 필수요건이 아니나 자발성은 내포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용되는 전달매체는 휴대폰으로 국한된다. 이러한 이창훈(2016)의 정의는 섹스팅의 다양한 성격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특히 두 번째 정의 내용에서는 음란물의 내용을 청소년이 스스로 생산한 비상업적 음란물과 모든 성인 음란물로 명시하였는데, 이것은 충분히 포괄적이라 보기 어려우며 첫 번째 정의에 명시된 대로 모든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의 영상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또한, ‘섹스팅’은 행위를 표현하는 용어이지 행위자의 의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강제성 뿐 아니라 자발성도 필수요건으로 보는 것은 국제적 기준과 맞지 않는다.

이후 허경미(2017:362)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자신의 누드 또는 노출사진, 성적 행위 등을 묘사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또는 채팅, SNS 등을 통하여 주고받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이창훈(2016)의 정의와 달리 허경미(2017:362)의 정의 내용에는 제3자의 성적 영상을 제외하고 참여자의 성적 영상으로 제한이 되었으며, 음성이나 문자 메시지도 그 내용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에 매개체를 국한하지 않고 인터넷사이트나 SNS를 포함한 것이 차이랄 수 있다. 이렇게 국제적 정의와 달리 국내에서는 섹스팅의 범위를 보다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3. 섹스팅과 성착취

Wolak과 Finkelhor(2011)은 2008년과 2009년 수사 대상이 된 550건의 섹스팅 사건을 검토하여 증거에 기반한 섹스팅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들은 섹스팅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성적인 이미지나 동영상의 제작, 전송, 유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 송수신까지도 포함하므로 문제적 성격을 가진 섹스팅(problematic sexting)을 언급할 때는 ‘미성년자가 생산한 성적 영상(youth-produced sexual images)’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보았다(Wolak & Finkelhor, 2011:2). 이들의 연구(Wolak & Finkelhor, 2011)에서는 먼저 ‘미성년자가 생산한 성적 영상’을 ‘학대적

(aggravated) 성격과 ‘실험적(experimental)’ 성격으로 나눈다. 학대적인 성격의 영상은 성인이 참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는데, 미국 연방 법 상에서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아동성애물³⁾을 촬영하도록 하는 것을 범죄화 하므로⁴⁾ 성인이 참여하였다면 학대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성인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라도 악의(intent to harm)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했다거나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은 영상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등 부주의하게 영상을 사용(reckless misuse)한 경우 학대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촬영 당시에는 범죄적 성격이 없었다고 하여도 이후 대상자의 뜻에 반하여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대상자를 협박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학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

실험적 성격의 영상은 성인의 개입 없이 미성년자 사이에서 애정을 확인하려는 목적이거나 성적인 관심 추구의 목적 등으로 제작된 것으로 범죄적 성격이 없다. Wolak과 Finkelhor(2011:3)은 실험적 성격의 영상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가 그 시기의 규범적(normative)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으나, 성적 매력을 추구하고, 연애할 대상을 원하며, 또래집단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욕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Wolak과 Finkelhor(2011)의 연구에서 범죄적 성격의 유무를 1차적으로 동영상 촬영동기의 악의성 여부로 보지 않고 성인의 참여 여부로 구분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인이 먼저 유인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성인에게 먼저 접근하여 동영상을 찍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청소년의 이러한 행동은 발달단계적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범죄적 목적으로 간주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이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공간을 선택하는 이유는 온라인 탈억제효과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Suler, 2004)⁵⁾. 청소년은 인터넷 채팅방을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숨길 수 있고, 자신의 친구들이나 가족, 선생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비밀이 보장된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며 자신의 실제 자아와 분리시켜 생각하므로 그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에 대해서

3) 아동이 참여한 성적 영상물은 ‘아동성착취물’으로 명명하도록 록셈부르크 지침에서 권고하고 있으나 미국 법무부의 문서에 child pornography로 명시되어 있어 아동성애물로 번역하였다.

4) Department of Justice(2020). Citizen’s Guide to U.S. Federal Law on Child Pornography. <https://www.justice.gov/criminal-ceos/citizens-guide-us-federal-law-child-pornography>에서 2022.2.2. 인출.

5) 온라인 탈억제효과란 개인이 오프라인 상에서는 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온라인 상에서 더 쉽게 표현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더 개방하는 현상을 말한다.

자신에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에서는 사소한 보상을 약속받은 상태에서도 상대방이 원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신의 성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오프라인에서라면 성적으로 이끌리지 않을 대상과도 오프라인에서 하지 않을 행동을 좀 더 거부감 없이 하게 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성착취의 매개창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던 랜덤채팅의 운영 데이터를 분석한 박광선(2016:140-141)은 남성이 여성에게 먼저 자신의 성적 영상을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접근한 전체 사례 중 10대 남성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5.2%이며,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접근한 전체 사례 중 10대 여성 청소년이 먼저 접근한 사례의 비중은 29.2%를 차지한다고 분석하였다. 즉, 4명 중 1명 이상의 남녀 청소년이 타인에게 먼저 접근하여 성적인 관심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1,6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탁틴내일, 2020:44)의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개인정보나 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냈을 때 받았던 보상으로, ‘보상을 주지는 않았으나 칭찬하거나 친절하게 대해주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 금전적 이득이 아니라 관심이나 애정을 바라고 성적 행동을 하는 청소년의 수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금전적 보상이나 선물과 같은 물질적인 대가와 함께 관심, 애정 등 정신적 보상이 아동·청소년에게 착취 피해 유인의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금전적 대가가 없는 성착취의 경우, 섹스팅에서 시작된 성착취나 음란물 유포 문제 발생 이후 청소년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부모나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 성적 호기심이나 욕구 충족, 또는 상대방의 애정을 바라고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소통을 시작하거나 상대방에게 먼저 접근한 경우 성착취의 피해자가 되더라도 자신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성인과 아동·청소년간의 섹스팅의 경우에는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성적 호기심, 애정 욕구, 죄책감 등 심리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성착취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가학적인 행위를 아동·청소년이 받아들이기 수 밖에 없게 만들며, 피해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그루밍(grooming)이라고 한다.

Ⅲ. 온라인 그루밍의 개념과 특성

1. 성적 그루밍의 정의

실종아동 및 착취아동을 위한 국제 기구(ICEMEC,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는 그루밍(grooming) 행위를 아동이 성적인 행위(sexual activity)를 하게끔 준비하는 목적으로 아동이나 아동의 가족에게 접근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ICEMEC, 2017:9). 또한 록셈부르크 지침에서는 자신과 성적인 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아동과 관계를 쌓는 과정으로 설명했다(ECPAT, 2016:51). 이와 유사하게 학술연구에서 사용된 성적 그루밍(sexual grooming)의 정의는 ‘아동에게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거나, 아동이 순응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에게 (아동이 학대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비밀 유지 등을 위해 아동을 학대하기 전에 아동, 그리고 밀접한 관계의 성인,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이다(Craven, Brown, & Gilchrist, 2006:297). 또한 McAlinden(2012:11)은 성착취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또는 범죄가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에 있어서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뢰를 쌓거나 성적 가해 행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려고 다양한 통제와 조작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성적 그루밍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동이나 아동의 가족과 친분을 쌓는 등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이후 범죄가 발각되지 않도록 하여 범죄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다.

〈표 1〉 그루밍(Grooming)의 정의

출처	정의
ICEMEC(2017:1)	범죄행위에 대한 아동의 저항감을 낮추기 위해 아동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쌓으려는 치밀하게 계산되고 계획된 심리적 조작(manipulation)
ECPAT(2006:51)	행위자가 자신과의 성적인 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아동과 관계를 쌓는 과정
Craven, Brown, & Gilchrist, (2006:297)	아동에게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거나, 아동이 순응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에게 (아동이 학대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비밀 유지 등을 위해 아동을 학대하기 전에 아동, 그리고 밀접한 관계의 성인,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
Staksrud(2013:153)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학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아동을 유인하기 위해 성인이 사용하는 전략
McAlinden(2012:11)	성착취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또는 범죄가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에 있어서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뢰를

출처	정의
	쌓거나 성적 가해 행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려고 다양한 통제와 조작 기술을 사용하는 것
전수아, 권하늬, 정한나, 김수영(2021: 101)	가해자가 아동을 좀 더 쉽게 성적으로 학대할 수 있고, 동시에 발각될 가능성이 적은 상황으로 교묘히 조정하는 과정

Winters와 Jeglic(2017)은 성적인 그루밍의 단계를 1) 피해자 선택, 2) 피해자에게 접근, 3) 신뢰 구축, 4) 신체적 접촉에 무감하게 만들기로 구분하였다. 각 단계의 특성을 하나씩 포함한 시나리오 4개와 4단계의 그루밍 내용이 모두 포함된 시나리오, 그리고 어떠한 그루밍 내용도 포함하지 않은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대학생 참여자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6개의 시나리오 중 하나를 읽도록 하였다. 각각의 시나리오를 읽은 참여자는 시나리오에 나오는 성인이 아동성애자라고 생각하는지와 이후 상황이 아동성착취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지를 0(절대 그렇지 않다)에서 100점(분명히 그럴 것이다)의 척도로 응답하였다. 그 결과, 모든 그루밍 단계가 포함된 시나리오를 읽은 응답자 집단에서 가해자가 아동성애자라는 것에 대한 응답 평균은 17.3이었으며, 이후 아동성착취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데에 대한 응답 평균은 18.05로 나타났다. 또한 6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집단간 비교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Winters & Jeglic, 2017:729). 즉, 이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는 모든 그루밍의 단계가 포함된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에도 그루밍 상황임을 대체로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그루밍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예측에 차이가 없었다.

그루밍의 행위자는 대상아동이 타인에게 자신의 행위를 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와 통제를 하며, 그 때문에 대상아동은 자신이 착취당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더라도 이를 보호자나 경찰에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당하는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구축되기 이전에 그루밍 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을 멈추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적인 단계에 이르기 전의 대화 내용은 대상아동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그것이 그루밍 대화인지 일반적인 대화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Winters와 Jeglic(2017)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루밍 행위가 진행과정에서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려우며 그루밍이 성적 착취행위로 이어진 후에야 행위자의 의도가 그루밍이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온라인 그루밍의 정의와 행위 내용

성적인 그루밍은 오프라인에서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ICEMEC(2017:9)는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아동과의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 위해 인터넷이나 다른 전산 기술을 사용하여 아동과 관계를 쌓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에서 나타난 온라인 그루밍과 오프라인에서의 성적 그루밍의 차이점은 온라인 그루밍에는 오프라인 만남을 전제로 하지 않은 온라인에서의 성착취를 위한 그루밍 행위가 포함되며, 피해아동에게 접근하는 데에 온라인 매체가 사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성적인 그루밍은 아동뿐 아니라 아동에게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 등 주변인에 대한 그루밍 행위가 포함되지만, 온라인 그루밍에서 그루밍의 대상은 피해아동에 국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O'Connell(2003)은 인터넷 채팅방에서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과 대화하려는 성인과 청소년의 행동 패턴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5년간 아동으로 위장하고 이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 결과, 온라인 그루밍의 행위 양상을 여섯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2〉 O'Connell(2003)의 온라인 그루밍 단계 구분

단계	내용
1. 친분 형성 단계 (Friendship-forming)	아동의 사진을 요청하는 등 개인정보 탐색하여 타겟 설정
2. 관계 형성 단계 (Relationship-forming)	학교, 가정생활 등 아동의 환경, 관심사 등 탐색하여 친밀감 형성
3. 위험 측정 단계 (Risk Assessment)	대화내용을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들킬 가능성 탐색
4. 배타성 생성 단계 (Exclusivity)	서로 동등한 관계, 아동에 대한 신뢰 등을 가장하여 제3자의 개입을 막음
5. 성적인 단계 (Sexual)	아동과의 성적인 대화, 또는 아동에게 자위를 시킨다거나 노출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우리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식으로 강제하며 비밀 유지
6. 결론 단계 (Conclusion)	아동이 잘못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제3자에게 알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아동에게 칭찬을 반복하거나, 또는 오프라인에서의 아동성착취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만날 약속을 잡는 등의 대화

자료: O'Connell, R.(2003:8-13)의 내용을 표로 구성⁶⁾

6) O'Connell, R. (2003). A Typology of Child Cybersexploitation and Online Grooming Practices. <https://image.guardian.co.uk/sys-files/Society/documents/2003/07/17/Groomingreport.pdf>에서 2022.2.12.인출.

먼저 친분형성단계는 주로 성인 행위자가 대상자를 물색하는 단계이다. 상대 아동이 자신의 성적 취향, 또는 성적 목적에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 단계에서는 성별, 나이, 외모에 대해 묻게 된다. 때로 사진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 단계에서 요구하는 사진은 성적인 사진보다는 아동의 신상(성별, 나이, 외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상적인 사진이며, 성적인 목적은 드러내지 않는다. 다음으로 관계 형성 단계는 친분형성단계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는데, 아동의 학교나 교우관계 등 일상생활에 관계된 대화를 나누며 아동에게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 한다(O'Connell, 2003:8-9).

다음으로 위험 측정단계에서 그루밍 행위자는 아동이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호자나 다른 가족 등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알기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배타성 생성 단계는 일반적으로 위험 측정 단계를 통해 안전하다고 여겼을 때 이루어지는데, 행위자와 아동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대화 내용을 타인에게는 비밀로 할 것을 합리화하며 그것을 '신뢰', 또는 '동등한 관계' 등으로 포장한다. 또한 아동과 행위자의 관계를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사이'로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말하며 이후의 성적인 단계에 앞서 아동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여게끔 만든다(O'Connell, 2003:9).

성적인 단계에서는 아동의 성적 욕구나 관심을 확인하는 질문 등 아동이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질문부터 시작하여 점차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아동에게 성적인 사진을 찍을 것을 요구하거나 음란물을 보도록 하는 등 착취적 성격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결론단계에서는 자신의 착취행위를 애정으로 정당화하고 아동의 행동을 칭찬하거나, 오프라인에서 착취 행위를 이어가기 위해 약속을 잡는 등의 행위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관계를 종결한다(O'Connell, 2003:9-10). O'Connell(2003)의 6단계는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때에 따라 여러 단계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고, 성적인 대화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한숙희·정희진·조아미(2020:163)는 국내의 판례 분석을 통해 그루밍의 어떠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분석한 7건의 판례 중 그루밍의 모든 단계가 포함된 것은 1가지 판례 뿐이었다⁷⁾.

7) 한숙희 외(2020)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언급한 O'Connell(2003)의 범주가 아닌 Welner(2010)가 제시한 그루밍의 6단계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에는 피해자 고르기(1단계), 피해자의 신뢰 얻기(2단계), 욕구 충족 시켜주기(3단계), 고립 시키기(4단계),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5단계), 통제 유지하기(6단계)가 포함되며, 이는 O'Connell(2003)과 유사하다. Welner(2010)의 내용은 오프라쇼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으로 학술논문 게재되지 않았다(참고: <https://www.oprah.com/oprahshow/child-sexual-abuse-6-stages-of-grooming#ixzz3nQYifhkb>. 에서 2022.4.27. 인출.)

그러나 오프라인에서의 그루밍과 마찬가지로 모든 단계에서 행위자는 아동이 착취 피해자임을 자각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받을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한 심리적 조작(manipulation)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O'Connell이 제시한 6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행위(신뢰관계 구축을 통하지 않은 대가 지불, 강압, 협박 등)를 통한 그루밍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심리적 조작에 포함된다(Kloess, Hamilton, & Beech, 2019:90). O'Connell (2003)의 단계적 정의는 연구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선형적(linear)으로 발생하지 않는 행위를 선형적으로 표현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연구에서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심리적 조작(manipulation), 접근성(accessibility), 라포 형성(rapport building), 성적 내용(sexual context), 위험 측정(risk assessment), 속임(deception)의 6개 요소를 추출하였다(Whittle et al., 2013:64-66). 그러나 이 역시 O'Connell(2003)의 6단계와 마찬가지로 모든 온라인 그루밍 행위 내용에 6개의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양상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실제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3. 온라인 그루밍의 지속기간

랜덤채팅방과 같은 성적인 성격과 익명성이 분명한 공간에서는 성적인 요구가 대화 초반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한 성적 착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한편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ECPAT, 2006:52),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법적 제재를 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윤정숙·이태현·김현숙(2019:52-54)의 연구에서는 108건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법률위반이 포함된 수사재판기록을 일반 성범죄, 오프라인 그루밍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는데, 유형별 성폭력 지속기간을 비교한 결과 1일인 경우는 일반 성범죄(50.0%), 온라인 그루밍(33.3%), 오프라인 그루밍(11.9%) 순이었고 이틀~1주일의 경우, 온라인 그루밍(33.3%), 일반 성범죄(5.8%), 오프라인 그루밍(2.4%) 순이었다. 두 결과를 종합하면 범죄가 1주일 이내로 지속되는 경우 온라인 그루밍(66.6%), 일반 성범죄(55.8%), 오프라인 그루밍(14.3%) 순으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평균 지속기간이 다른 유형의 성범죄보다 길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루밍의 지속기간을 보면, 오프라인 그루밍의 경우 1년 이상 그루밍이 지속된 기간은 59.4%로 오프라인 그루밍 범죄의 절반 이상은 1년이상 그루밍 기간을 거친 후에 성범죄로 이어졌

는데 반하여,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는 1년 미만의 그루밍 기간을 거친 경우가 83.3%로 나타났고, 이 중 3달 미만인 경우는 전체의 58.3%로 오프라인 그루밍에 비하여 확연하게 그루밍 기간과 범죄 지속기간이 짧게 나타났다(윤정숙 외, 2019:52-54). 탁틴내일의 2020년 청소년 대상 인터넷 이용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 결과도 이와 비슷하여 온라인에서 만난 낯선 사람과 가장 길게 연락한 기간을 조사한 결과, '1개월 미만'(43.5%), '1개월~6개월'(25.9%), '7개월~12개월'(10.9%) 순이었으며 학교급, 지역, 성별, 연령대, 피해 경험 유무와도 관계없이 '1개월 미만'이 가장 높게 보고되었다(탁틴내일, 2020:63). 그러나 같은 연구에서 피해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19개월 이상 대화를 이어갔다는 경우가 36.2%로, 피해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의 경우(12.6%)보다 3배 정도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므로(탁틴내일, 2020:64), 오프라인에서의 성적인 그루밍에 비하여 온라인 그루밍의 그루밍 기간과 범행 기간이 모두 평균적으로 짧으나, 장기간에 걸쳐 그루밍이 지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온라인 그루밍과 성착취

영국 아동성착취 피해자 지원기관인 버나도(Bernardo)는 2016년 조사시점 기준 지난 6개월간 5개 센터에서 지원받은 아동 피해자 중 42%가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라고 밝혔는데,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의 61%는 가해자를 직접 만나 오프라인 성착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략 절반 가량의 피해자는 2명 이상의 가해자에게 피해를 당했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성착취 행위도 있었는데, 섹스팅, 자해행위 요구,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를 이용한 성적 행위, 음란물 교환 등이 포함되었다(Fox & Kalkan, 2016). Briggs, Simon, & Simonsen(2011)은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의 목적을 온라인에서의 성착취와 오프라인에서의 성착취 목적으로 분류하였는데, 오프라인에서의 성착취 목적은 접근목적(contact-driven)으로, 온라인에서의 성착취는 '판타지 충족을 위한'(fantasy-driven)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분류법은 이후 다른 연구자들 역시 지지하여 이를 기반으로 재범위험성 평가가 제안되었다(Quayle et al., 2014; Merdian et al., 2018).

Briggs, Simon, & Simonsen(2011)는 인터넷 채팅에서 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하려 하였다가 위장수사를 통해 검거된 51명 재소자의 기록을 접근 목적과 판타지 충족 목적으로 분류하여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판타지 충족 목적의 가해자에 비하여 접근 목적의 가해자는 온라인에서 상대적으로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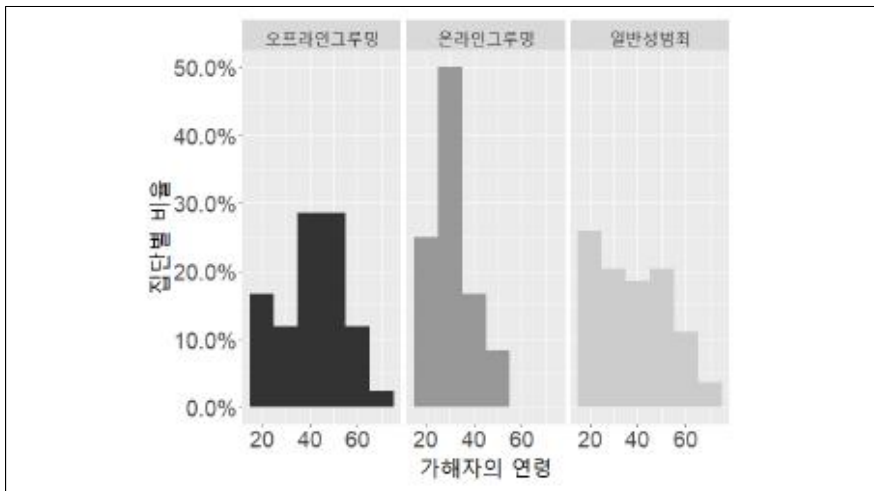
화시간이 짧으며 성적인 의도를 대화 초반에 드러내는 것을 확인하였다(Briggs, Simon, & Simonsen, 2011:84). 이 결과를 보면, 접근 목적의 가해자는 오프라인에서의 성착취를 목적으로 하므로 피해대상을 물색함에 있어서 대상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에 응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만남이 가능한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주거 지역, 성에 대한 관심 정도 등 접근성과 성적인 목적 달성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화를 한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대화를 포함한 아동·청소년과의 대화는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판타지 충족 목적의 경우는 온라인에서의 대화 자체가 성적 분출구 역할을 하게 되므로, 아동과의 관계 형성을 비롯하여 채팅 중 성적 이미지 교환, 자위행위 노출, 사이버 성관계(cybersex) 등 온라인에서의 성적 대화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때문에 접근 목적일 때보다 대화 시간이 길 수 있고 대화의 내용도 보다 성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온라인 그루밍의 유형을 접근 목적과 판타지 충족 목적으로 분류를 하면 가해자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유형 분류는 성인이 아동에게 접근하는 이유를 개인의 성적 욕구로만 이해하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박사방 사건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 성착취물을 생산하여 유포 및 판매할 목적 등 직접적인 성학대 이외의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아동에게 온라인상에서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가해자의 목적은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성적 판타지 충족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다른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의 성착취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판타지 충족’이라는 용어로 대체될 수는 없다.

5. 온라인 그루밍의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Briggs, Simon, & Simonsen(2011:83)은 그루밍 성범죄자는 강간범이나 다른 아동성애 범죄자들과는 달리 범죄적 양상이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동성착취물 탐닉, 성매매 경험, (성인과의) 성관계만을 위한 만남 경험의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연령대를 보면 전체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1.5세(표준편차=8.7)였는데, 이 중 19~29세의 비중이 47.1%이고 30~39세의 비중이 31.4%로 2,30대의 연령에 집중되어 있었다(Briggs, Simon, & Simonsen, 2011:78). 국내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양상

을 보였는데, 오프라인 그루밍의 경우 연령 평균이 41.7세(표준편차=12.9)였는데,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가해자의 연령 평균은 31.2세(표준편차=8.7)로 나타났으며 대다수의 가해자(83.3%)는 40대 이하인 것으로 보고되어(윤정숙·이태현·김현숙, 2019:48) Briggs, Simon, & Simonsen.(2011)에 나타난 가해자의 평균 연령 및 연령 분포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자료: 윤정숙·이태현·김현숙(2019:49).

[그림 1] 윤정숙·이태현·김현숙(2019)의 가해자 유형별 연령분포

윤정숙·이태현·김현숙(2019:51)에서는 이외에도 오프라인 그루밍 집단이나 일반 성범죄 집단과 다르게 온라인 그루밍 집단의 가해자는 친족이나 그 외 면식관계의 대상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아동이나 청소년을 범행대상으로 삼으며(전체 온라인 그루밍 집단의 84.2%), 성범죄 전과이력의 경우 오프라인 그루밍 집단보다는 많으나 일반 성범죄 집단보다 다소 낮은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학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중졸부터 대졸이상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고, 직업의 경우는 일반 성범죄 집단과 비슷하게 무직인 경우가 절반 가량(58.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41.7%는 일용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나 직업적 특성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윤정숙·이태현·김현숙, 2019:56-57).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의 특성에 대해 주로 남성인 것 이외에 일반적 특성이 발견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주로 접근하는 아동·청소년의 특성 역시 성별(여성) 이외의 특성에선 다양하게 나타난다. 미국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로 실형이 선고된 남성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Malesky, 2007)에서는 인터넷 채팅방, 또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한 가해자 31명에게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을 특정할 때 피해자의 어떠한 특성이 결정적 이유가 되었는지를 물었다⁸⁾. 가해자의 응답은 세 가지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는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관심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표현한 경우였다. 온라인 프로필, ID, 이메일주소 등에 'sex'를 언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아동·청소년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거나 순응적인(submissive) 성격으로 보이는 경우 등으로 아동·청소년이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요구를 잘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타인과의 대화를 갈구하는 것으로 보일 때, 온라인에 장시간 접속하여 있을 때 가해자는 대상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줄 것으로 생각하였다. 세 번째는 아동의 ID나 프로필 사진 등을 통해 연령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로 미성년자 성착취를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경우, ID나 사진을 통해 연령을 유추하여 미성년자로 보이는 대상에게 접근한다. 이러한 경우 한 명의 대상을 특정하여 그루밍을 시작하기보다는 다수에게 접근을 시도한 후 반응을 보이는 경우 연령을 확인하고 그루밍을 시작한다. 한 가해자는 이렇게 응답하였다.

“나는 많은 소녀들에게 ‘안녕’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나는 응답하는 모든 소녀에게 답장을 했다. 자신이 10살 정도라고 밝히는 경우에만 호감이었다.”(Malesky, 2007:27)

위의 인용문은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의 성별을 제외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크게 영향을 없으며 그보다는 접근가능성이 더 주요한 요인이 됨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100명의 가해자에 대한 위장수사기록을 분석한 미국의 한 연구(Winters, Kaylor, & Jeglic, 2017:68)에서는 가해자가 접근하였다고 믿었던 대상 아동의 인터넷상 신상정보를 분석하였는데, 95%가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3.2세이고 대부분 가해자와 같은 주에 거주하였으며, 채팅 상에서의 아이디는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경우는 없었다. 연구자들이 이용한 자료는 Perverted Justice라는 사설 웹사이트(<http://www.perverted-justice.com/>)의 대화 스크립트로 이 사이트는 2003년부터 자원봉사자가 아동으로 위장하여 인터넷상에서 아동을 성착취하려는 성인과 대화를 하고 성인이 만남을 요구할 경우 경찰에 연락하여 성인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경찰과 공조하여 위장수사를 진행한 단체이다. Winters, Kaylor, & Jeglic(2017)에서는 가해

8) Malesky(2007:26)의 설문 내용을 의역하였음. 원문은 다음과 같음. “What initially attracted you to a particular child/adolescent online that you wanted to 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for sexual purposes?”

자가 체포된 경우의 대화 기록만을 조사했으므로, 가해자는 모두 접근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온라인 그루밍을 시도한 경우라 할 수 있으며, 아동으로 위장한 자원봉사자들은 가해자의 만남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등 순응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아동과의 물리적 거리와 아동의 만남 승낙 여부가 중요한 접촉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과 연령별 차이를 보면 여자 청소년이 그루밍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Whittle et al.(2013)은 온라인 그루밍 피해 아동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남자 아동·청소년에 비하여 여자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밝혔다. 남자 아동·청소년의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여자 아동·청소년보다 더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지만, 그럼에도 성적인 접근을 받는 빈도와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나 성적 이미지에 노출되었을 때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는 여자 아동·청소년이 더 높았다. 또한, 아동이나 성인에 비하여 청소년의 경우 원치 않는 성적인 접근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충동적이며 위험을 무릅쓰려하는 사춘기적인 특성 때문에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Whittle et al., 2013:67-68).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국의 경우와 비슷하게 온라인 그루밍 피해는 여성에 집중되어 있고, 오프라인 그루밍이나 일반 성범죄에 비하여 가출한 경우가 많았으며, 음주 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었다(윤정숙·이태현·김현숙, 2019:59-60). 우리나라의 경우 숙소 제공이나 용돈 등을 미끼로 가출 청소년에게 접근한 후 오프라인에서 성착취를 시도한 사례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여진다.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그루밍 피해 경험을 알아보고자 한 김지영 외(2021)에서는 온라인상에서 낯선 사람과 일상적인 대화만을 한 경우(일상대화집단)와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요청받거나 대가를 약속받는 등 성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화를 한 경우(온라인그루밍집단)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그루밍집단은 일상대화집단과 비교하여 학교급(중학교급과 고등학교급의 비율)의 비율에서 차이가 크지 않고, 온라인그루밍집단 내에서의 학교급별 차이를 보았을 때에도 대화시작시점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김지영 외, 2021:110).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Whittle et al.(2013)의 결과와는 다르게 연령에 따라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해당 연구는 초등학교급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아동과 청소년간의 차이는 분석 대상이 아니었다.

IV.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규에 대한 논의

2021년 3월 23일 신설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의 2는 온라인 성착취의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나 처벌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ICEMEC(2017)에서는 196개국의 법률 내용을 분석하여 온라인 그루밍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포함된 내용은 온라인 그루밍 대상 특정 법률 존재 여부, 온라인 그루밍의 정의 존재 여부, 아동과 만날 목적의 그루밍 처벌 여부, 아동을 만날 목적과 무관한 그루밍 처벌, 아동에게 음란물 상영 처벌 여부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CEMEC(2017:9)는 온라인 그루밍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아동과의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 위해 인터넷 등을 사용하여 아동과 관계를 쌓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이 제안한 법률적 정의는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였다. ICEMEC(2017:39)는 법률상, ①성적인 행위를 하기 위한 만남의 목적, 또는 온라인에서 아동이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설득/강요하려는 목적으로 ②인터넷이나 인터넷 기반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③성인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④소통, 유인, 제안, 유도 등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정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 시행중인 아청법 제15조의 2의 내용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으나 ICEMEC에서 권고한 내용이 그대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표 3〉 참고).

〈표 3〉 ICEMEC(2017)의 법률적 정의 내용과 아청법 제15조의2 비교

	ICEMEC 정의 기준	아청법 제15조의 2
목적	성적인 행위를 하기 위한 만남의 목적, 또는 온라인에서 아동이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설득/강요하려는 목적	(대상이 만 16세 이상 아동일 경우) 성적 착취 목적 (대상이 만 16세 미만 아동일 경우) 목적 명시 안됨
매체	인터넷이나 인터넷 기반 전자기기(ICT)	정보통신망
대상	가해자: 성인 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	가해자: 19세 이상의 사람 피해자: 19세 미만의 사람
행위 내용	소통, 유인, 제안, 유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킴 - 제2조제4호(성교, 유사 성교,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

	ICEMEC 정의 기준	아청법 제15조의 2
		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우리나라의 현행 법은 ICEMEC(2017)의 권고에 맞지 않는 측면 이외에도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ICEMEC(2017)에는 성적인 행위가 목적인 대화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대화 내용 자체에 성적인 내용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성이 입증되는 경우 온라인 그루밍의 행위로 인정되지만, 국내 법률상에서는 행위 내용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인정이 되고 이 또한 제2조4호에 나열된 네 가지 항목에 국한되어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그루밍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두 번째로, 16세 미만인 경우와 다르게 16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의 경우는 행위자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접근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성적 착취에 대한 법적 정의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내용이 불분명하다. 국제적으로는 성인이 아동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 자체를 성착취라 보고 있는데, 이것에 따라 해당 조항을 이해한다면 ‘성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성착취’ 행위로 해석해야 한다. 연령에 따라 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기존 연구 결과에서 뒷받침되지 않으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청소년은 성장기적 특징 때문에 더욱 위험한 결정을 내리기 쉽고 범죄에 표적이 될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법 적용을 받게 되어 16세 이상의 피해자에게 성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과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세 번째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는 그 성격이 주관적이어서 피해자 뿐 아니라 행위자도 자신의 행위가 범법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온라인 그루밍의 초기 단계에서는 성적인 대화 없이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상대화만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해당 법의 목적이 성인이 아동·청소년과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대화를 하는 것을 금하기 위함이라면 친밀감 구축 단계에서도 그 목적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대화의 요건이 본 연구에서 검토한 문헌에서 제시된 온라인 그루밍의 성격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그루밍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도 있으나, 절반 이상의 경우 1주일 이내의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1일 이내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지속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반복성에 있어서도 성적인 요청의 반복으로 볼 것인지, 대화의 반복으로 볼 것인지 등 기준이 불분명하여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처벌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온라인그루밍 처벌법의 한계는 위장수사의 한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위장수사의 목적 중 하나가 온라인그루밍 처벌법상의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와 자료 수집인데, 현행법상으로는 사법경찰관리가 16세 미만으로 위장하는지, 16세 이상으로 위장하는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아동으로 위장한 사법경찰관리에게 미성년인지는 물었지만 정확한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이 행위자의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영국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를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벌법상에서는 16세 미만의 아동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상대방을 16세 미만으로 믿는 상태에서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성적인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 경우를 처벌한다. 즉, 연령에 대한 단서조항은 피해아동의 실제 나이가 아니라 행위자가 16세 미만의 아동과 대화하고 있다는 믿음이다. 이외에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피해 아동의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행위자가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와 대화하고 있다는 믿음이 입증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김지영 외, 2021:40-53). 이러한 조항이 우리나라의 법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장수사를 통해 입수한 증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라는 것을 입증하고, 성적 욕망이나 모욕감, 수치심을 느낄만한 대화 내용인지를 판단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발생증인지에 대한 판단을 명확한 지표나 가이드라인 없이 사법경찰관리 개개인의 재량에 의존하게 되면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V. 요약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그루밍의 개념을 정립하고 온라인 그루밍 행위의 내용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또한, 온라인 그루밍이 발생하는 환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착취와 섹스팅의 개념에 대해 논하고 이를 통해 현행 법률 적용의 한계점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앞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성착취는 국내 현행 법률 상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국제적

으로는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을 성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아동성학대, 아동성착취물, 아동과의 성행위, 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 아동을 성적 목적으로 유인하는 행위 등이 아동성착취에 포함된다(ECPAT, 2016:24-25). 섹스팅의 정의는 연구자에 따르지만, 좁게 정의하면 휴대폰 등 전자매체를 통한 나체, 또는 성적 행위를 암시하거나 묘사하는 영상의 제작, 송·수신, 전달이라 할 수 있고, 넓게는 영상이나 동영상 뿐 아니라 문자 등을 포괄하여 성적인 내용을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타인과 주고받는 모든 행위라 할 수 있다.

성적인 그루밍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동이나 아동의 가족 등 주변인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방심하게 하여 이후 범죄행위를 지속하고 은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온라인 그루밍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아동과의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 위해 인터넷이나 다른 전산 기술을 이용하여 아동과 신뢰관계를 쌓는 것을 의미한다(ICEMEC, 2017:9). 그루밍의 행위 내용은 축약하면 ‘신뢰관계 구축’이므로, 그 뒤에 수반하는 범죄행위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 의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특히 익명채팅방과 같은 성적인 성격과 익명성이 분명한 공간에서는 진행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성착취 피해 발생 전에 제재하기가 더욱 어렵다.

온라인 그루밍 행위자의 목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대상자를 물색하기 위한 접근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에서 성착취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 접근 목적인 경우, 판타지 충족 목적보다 그루밍 시간이 짧으며 성적인 의도를 대화 초반에 드러내고 관계 형성보다는 대상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를 통한 심리적 조작을 한다. 온라인을 통한 판타지 충족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아동에게 변태적 성행위, 자위행위 등 아동성착취물 생산을 하도록 유도하게 될 가능성이 접근 목적일 경우보다 높으며 대화시간도 상대적으로 길 수 있다.

온라인 그루밍의 가해자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연령은 2,30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루밍이 포함되지 않은 다른 성범죄 가해자와는 달리 성범죄 전과 이력이 적은 편이고, 학력이나 직업에 있어서는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다(윤정숙·이태현·김현숙, 2019:51). 피해자의 특성을 보면, 여성 아동·청소년의 피해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특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성착취, 섹스팅, 온라인 그루밍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통해 현재 시행중인 온라인그루밍처벌법(아청법 제15조의2)이 실제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고 예방하는 목적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드러난 제한점에 대해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의 처벌법규는 사용된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많아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추후 보완하여 범죄억제력의 기대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성적 착취의 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은 타인을 신뢰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 그루밍 대화중 성적인 측면이 드러나지 않은 신뢰관계 구축의 단계에서부터 제재와 지원, 예방교육 등 예방노력이 절실하다. 성적 호기심 또는 욕구가 있는 아동·청소년이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온라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또는 자신이 원치 않는 행위를 통해서라도 누군가의 애정, 관심을 얻고 싶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의 개선 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보호체계 보완 등의 노력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경찰청(2021). 2020년 경찰통계연보. 제64호.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ce/publicce05.jsp>에서
2022.3.7. 인출.
- 김정연(2021).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의 도입 의의와 과제”. 형사정책. 제33권 제2호. 121-150.
- 김지영·황지태·최수형·이영섭·장하영·차종진(2021). “청소년대상 온라인그루밍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37집. 1-190.
- 박광선(2016) “랜덤채팅의 음란정보 유통 실태 및 정책대안의 탐색”. 경찰학연구. 제16권 제4호. 125-156.
- 윤정숙, 이태헌, 김현숙(2019).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의 특성.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창훈(2016). “청소년의 섹스팅 실태와 원인, 형사사법 정책의 방향에 관한 소고”. 교정담론. 제10권 제2호. 297-324.
- 전수아, 권하늬, 정한나, 김수영(2021).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52권 제1호. 97-138.
- 탁틴내일(2020). 2020년 청소년 대상 인터넷 이용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20.12.
- 한숙희, 정희진, 조아미(2020).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 판례분석”. 청소년문화포럼. 제62호. 145-171.
- 허경미(2017). “섹스팅과 리벤지 포르노의 범죄화 및 처벌법 쟁점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4호. 361-388.
- Briggs, P., Simon, W.T., & Simonsen, S.(2011). An exploratory study of internet-initiated sexual offenses and the chat room sex offender: Has the internet enabled a new typology of sex offender?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23(1), 72-91.
- Craven, S., Brown, S., & Gilchrist, E.(2006). Sexual grooming of children: Review of literature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12(3), 287-299.
- Council of Europe(2007).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Lanzarote: Council of Europe, 2007.10.25. CETS 201.
- Department of Justice(2020). *Citizen's Guide to U.S. Federal Law on Child Pornography*.
<https://www.justice.gov/criminal-ceos/citizens-guide-us-federal-law-child-pornography>에서 2022.2.2. 인출.
- ECPAT Intragency Working Group on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2016). *Terminology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Luxembourg:Intragency Working Group, 2016.01.28.
- Fox, C., & Kalkan, G.(2016). *Barnardo's Online Grooming Survey 2016*, Barnardo's Registered Charity, Dec. 2016.
<https://www.bl.uk/collection-items/barnardos-online-grooming-survey-2016>에서 2022.3.3. 인출.
-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2017). *Online Groom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Model Legislation & Global Review*.
- Kloess, J. A., Hamilton-Giachritsis, C. E., & Beech, A. R. (2019). Offense processes of online sexual grooming and abuse of children via internet communication platforms. *Sexual Abuse: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31(1), 73-96.
- Malesky, Jr. L.A.(2007). Predatory online behavior: Modus operandi of convicted sex offenders in identifying potential victims and contacting minors over the internet.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16(2), 23-32.
- McAlinden, A.(2012). *'Grooming' and the Sexual Abuse of Children: Institutional, Internet, and Familial Dimensions*. Oxford University Press.
- Merdian, H. L., Moghaddam, N., Boer, D. P., Wilson, N., Thakker, J., Curtis, C., & Dawson, D.(2018). Fantasy-driven versus contact-driven users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Offender classification and implications for their risk assessment. *Sexual Abuse: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30(3), 230-253.
- Morelli, M., Bianchi, D., Baiocco, R., Pezzuti, L., & Chirumbolo,

- A.(2016). Sexting, psychological distress and dating violence amo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Psicothema*, 28(2), 137-142
- Mori, C., Temple, J. R., Browne, D., & Madigan, S.(2019). Association of Sexting With Sexual Behaviors and Mental Health Among Adolescen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AMA pediatrics*, 173(8), 770-779.
- O'Connell, R.(2003). *A Typology of Child Cybersexploitation and Online Grooming Practices*.
http://www.safer-internet.net/downloads/UCLAN_report_release.pdf. 예서 2022.3.1. 인출.
- Quayle, E., Allegro, S., Hutton, L., Sheath, M., & Loof, L.(2014). Rapid skill acquisition and online sexual grooming of childre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9, 368-375.
- SGB (Secretary General's Bulletin)(2003). *Special measures on protectio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UN Doc ST/SGB/2003/13. <https://undocs.org/ST/SGB/2003/13> 예서 2021.10.5. 인출.
- Suler, J.(2004). The Online Disinhibition Effect. *CyberPsychology & Behavior*, 7(3), 321-326.
- Temple, J. R., Paul, J. A., van den Berg, P., Le, V. D., McElhany, A., & Temple, B. W.(2012). Teen sexting and its association with sexual behaviors.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66(9), 828-833.
- U.S. Department of State(2021).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htt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21/09/TIPR-GPA-upload-07222021.pdf>. 예서 2022.3.7. 인출.
- Whittle, H., Hamilton-Giachritsis, C., Beech, A., & Collings, G.(2013). A review of online grooming: Characteristics and concern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8, 62-70.
- Winters, G.M., & Jeglic, E.L.(2017). Stages of sexual grooming: Recognizing potentially predatory behaviors of child molesters. *Deviant Behavior*, 38(6), 724-733.
- Winters, G. M., Kaylor, L. E., & Jeglic, E. L.(2017). Sexual offenders

contacting children online: An examination of transcripts of sexual grooming.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23(1), 62-76.

Wolak, J., & Finkelhor, D.(2011). *Sexting: A Typology*. Durham, NH: Crimes against Children Research Center.

Abstract

Child Sexual Exploitation, Sexting, Online Grooming: Conceptualization and Critique of the Current Legal Frameworks

Yeunjoo Chung*

Cases such as “The nth room” had become a major social issue in South Korea. Consequently ‘online grooming prevention legislation’ was adopted last year, but it still has some limitations. In order to discuss about those limitations, it was aimed to first conceptualize child sexual exploitation, sexting, and online grooming of children. The concept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differs from the concept of child sexual abuse as, in its definition, a victim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is requested sexual activities in exchange for any kinds of benefit. Sexting can be categorized as aggravated or experimental, and it is considered aggravated when adult participates. Online grooming is a manipulative tactic the adult uses in order to make his sexual exploitation of the child easier and harder to detect. Stages and characteristics of online grooming was also discussed. Finally, it was discussed the need to reconstruct the current legislation for better protecting child from online grooming and sexual exploitation.

Keywords : Child Sexual Exploitation, Sexting, Online Grooming, Children, Adolescent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Associate Research Fellow
(ychung@kwdimail.re.kr)